

『부성콤플렉스-분석심리학적 이해』 서평

박 효 인*

부모와 자녀는 천륜으로 이어져 있다고 한다. 천륜이란 하늘의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정신과 몸속에 가장 많이 닮아있고 공유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를 태산처럼 느끼고, 가장 따뜻한 품이며 보금자리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 즈음되면 부모를 보는 시각이 생기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전히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간직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닮아 있으므로 투사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애증으로 얽힌 실타래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어느 방향이 되었건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허용해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 책은 부모 중 아버지에 대하여, 현실적인 관계를 포함한 심리학적인 관계(부성 콤플렉스)를 아들의 측면에서 그리고 딸의 측면에서 치유를 중심으로 써어졌다. 이 내용은 두 분석가의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의 학문적 고찰이면서, 실제 분석 과정에서의 체험을 통한 발견물이다.

친구의 장례식에 갔다. 장성한 아들이 어머니 옆에 서있기도 하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조용히 움직였다. 친구의 젊을 때의 모습이 그 아들 안에 있었다. 표정이며 약간 들린 어깨 자세며 심지어는 손동작, 걸음걸이까지도... 남은 친구들은 먼저 간 친구를 잃은 슬픔에 망연자실하면서도, 그 아들의 존재를 통해 친구를 보며 위로를 얻었다. 우리는 부모의 삶에 이어져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로부터 이어져있다. 부모로부터 우리는 신체를 포함한 정신세계에서 영향을 받으며,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 삶에서 주어진 과제와 연결된다.

“신경증 환자의 배후에 그에게 고통스러운 운명의 짐을 지운 부모와 그 절대적인 힘 앞에 무력하기만 한 환자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문제의 중

*심리분석실<융학과 분석가 박효인>

심으로 다가갈수록 그 부모 역시 자신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자식에게 물려준 죄박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세대를 이어 가며 전해지는 운명의 그림자의 무게에 새삼 놀란다. 대개 환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의식하고 있더라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본문, p16).”고 저자 박신은 토로한다. 부모와 자녀 간의 드라마에서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나왔으나 자녀는 결국은 한 개체로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몫이 있다. 심리적으로 아들은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딸은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영향력이 어떻게 아들과 딸의 삶에 미치게 되는지? 삶의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부모와 자녀의 고통과 갈등의 드라마들은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인지? 그리하여 부모와 자녀는 각자 자신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 책은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이해된 부성콤플렉스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콤플렉스는 정서적 충격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떨어져 나간 정신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신적 체질에 속하는 각 개체에서 절대적으로, 혹은 미리 정해진 것으로서 개체에 고유한 사람의 현상이며, 꿈과 증상을 만들어 내고 무의식의 정신적 구조를 결정한다. 따라서 부성 콤플렉스는 단순히 개인의 역사에서 억압된 내용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성 원형이 기초가 되며, 그 내용은 아들이나 딸이냐에 따라, 또 개인이나 집단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본문, p40).” 융은 부성원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아버지가 아이의 시야에 들어오고 그 성질이 많은 면에서 모성 원형과 대립된다. 그것은 인간, 법과 국가, 이성과 정신, 그리고 자연의 활력과 관계를 결정한다. 아버지의 나라는 경계를 짓고, 공간에서 정확한 위치를 부여한다. 부성원형은 바람과 폭풍, 천둥과 번개로 나타나고 권위를 나타내며 법과 국가를 의미한다. 그는 세상에서 바람처럼 움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공중의 상들을 만들어 내는 자로서 모든 것을 감싸는 신상이자 역동적 원리다. 아버지는 사회로 어머니의 자리는 가족으로 대체된다(본문, pp38-39 재인용).”

남성과 여성의 성장 과정은 차이가 있다. 남자는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나와 아버지와 동일화함으로써 자아를 발달시키고, 아버지가 표상하는 것들을 내재화한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과 행동유형은 외부 세계 앞에

서 불안정한 처지에 있는 어린 아들에게는 성공적인 적응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신적 에너지가 외부로 향하도록 고무한다. 남아에게 이 과정이 순탄하지 못하면 남자는 다시 어머니의 치맛자락으로 파고들게 된다(본문, pp40-42).

남성의 긍정적 부성콤플렉스는 권위를 잘 믿고 영적인 신조와 가치 앞에 기꺼이 복종하는 경향을 낳는다. 대개 임상적으로 전반기에 긍정적 부성 콤플렉스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집단적 의식과의 동일시에서 다시 삶의 원천인 무의식의 세계로 돌아가야 할 시기인 인생 후반기에는 퇴행을 막는 아버지와 갈등이 시작된다. 아버지의 부성콤플렉스가 원형적으로 사로잡혀 무의식적 동일화 현상이 일어나면 아이가 더 무의식적으로 무책임하게 되고 정신병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강박적으로 자신과 아들을 무의식의 노예로 만든다. 즉 아버지로부터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와 그에 대표되는 관습으로부터의 의식적 분화에서 진정한 분리가 이루어진다. 한편으로 이러한 갈등과 경쟁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변화, 개선, 진전, 활력과 건강한 반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세계는 아들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으며,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본문, pp44-51).

부성콤플렉스가 부정적일 때 아버지 자신이 부성원형에 사로잡혀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높이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게 되어 아들에게 자신의 삶의 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지나치게 엄하고 완고하거나 폭력적일 정도로 권위적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아들은 내적인 권위와 자신감을 갖지 못하여 외적으로는 윗사람을 대할 때 어려움을 느끼고, 내적으로는 보상적인 권력충동을 통해 아버지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새로워지려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다. 아버지가 책임감 없고, 무관심하고, 방임하거나 무력하고 무능하고 제 역할을 못하면 아들은 교조주의에 빠져 도덕적 경직성, 권위주의, 강박적 사고나 행동 등의 형태를 나타내거나, 모성적 의존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타인의 도움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본문, pp52-62). 아버지의 부재로 형성된 콤플렉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유발하고 모성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보상작용으로 엄격한 태도를 가지게 한다. 결국 모성적인 의존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치열

한 갈등이 시작되고 이것은 영웅 어린이의 심리적 조건이 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남아의 내면에 있는 부성상이다(본문, pp58-61).

윙이 그의 저서에서 아버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듯이 “아버지는 원형적 남성상의 가장 강력한 육화이고, 도덕적 계명과 금지의 세계를 나타내며, 순수한 본능적인 것에 대적하는 기능을 가진 정신의 표상이자, 본능을 위협하는 법의 살아있는 체현이다. 아버지는 전통적 정신의 구체화로서 의식적 마음과 가치의 체계를 나타내며, 집단적 의식과 전통 정신을 대표하며 삶의 의미를 전수하고 옛 가르침에 따라 비밀을 설명해주는 교육적인 정신이며 전통적 지혜의 전달자다. 아버지의 모습에서 관습적인 ‘의견’뿐 아니라 ‘심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며 특히 철학적, 종교적, 보편적 관념 또는 그런 확신에서 나온 자세가 표현된다. 아버지는 지성을 체현하며 정신적 영적 원리이며 말 씀이고 질서이고 법이다.”(본문, pp72-73 재인용)

여성의 부성 콤플렉스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 시절 딸의 개인 아버지의 영향에 의해 딸의 정신 속에 선형적 조건으로 내재하는 부성원형이 활성화됨으로서 딸의 내면에 부성상이 형성된다. 딸은 내면에 형성된 부성상을 통해 개인의 아버지를 경험한다. 대극의 양면성을 가진 부성 원형이 활성화됨으로써 딸에게 경험되는 아버지는 실제의 개인 아버지보다 더욱 밝고 더욱 어둡다. 딸의 아버지와 관계는 딸의 내면의 남성적 측면과 관계 맺는 방식 및 현실에서 실제로 남성들과 관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딸의 여성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성을 포함한 여성성, 창조성, 영성에 영향을 주며 영적 동경과 관심을 유도한다. 딸에게 아버지의 말 씀은 거역할 수 없는 권위와 힘으로 작용하는데, 딸은 자란 후에도 이러한 부성상이 내재화됨으로서, 자신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며 명령을 내리듯이 자신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존재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딸은 불안전하고 결함 있는 인간적인 아버지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버지 자신도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 아버지의 어두운 그림자를 얼핏 엿보기도 한다(본문, p71).

부성의 원리가 여성의 삶의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지배 원리가 될 때 여성은 아버지 혹은 여성이 속한 사회의 집단적 이상과 가치관에 부응하고자 노력한다. 그런 여성은 아버지와 세인들의 기대와 평가를 의식하고, 외부로 드러나는 성과 등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자아의 역량과

의지력을 동원하여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몸을 혹사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어 병을 얻기도 한다. 또는 남다른 신념이나 성스러움의 실현을 위하여 온전히 종교에 헌신함으로써 개인적 삶을 희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성콤플렉스가 여성을 사로잡았을 때 여성은 타고난 본성에 따라 자신의 전체로서 자신을 살아낼 수 없는 심리적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또한 딸의 부성 콤플렉스는 딸의 에로스적인 측면과 여성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딸의 여성성을 억압하고 딸의 에로스의 기능을 향진시키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 여성성이 자연스럽게 발달하지 못하고 억압됨으로써 본성과 자발성이 억압되며, 성, 식욕들의 본능적인 측면과 여성의 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측면이 억압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자발적 감정과 충동을 억압하여 인간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본문, pp77-80).

부성콤플렉스에 사로잡혀 무의식 상태에 있는 자신의 본성으로 인한 ‘그림자 문제’와 자신의 본성으로 살지 못해 의식의 자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 미분화된 ‘아니무스’ 문제로 여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착각, 오해, 갈등, 불화, 소외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들과의 관계 역시 남성들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힘들다. 만남, 이별, 사랑, 결혼의 인생사에서 시행착오와 고통을 겪게 된다. 그녀들은 까다로운 여자가 되어 남자와 논쟁하고 남자에게 도전하고 남자를 비판하고 끌어내리려하며 남자에게서 부정적인 것을 추측하고 예상하며 남성을 힘들게 한다. 남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동성애자가 되거나, 남자를 무서워하게 되고, 남자를 피해버릴 수도 있다(본문, pp80-82). 마치 유리산 속에 갇혀 지내는 공주와 같다.

아버지는 딸의 아니무스 형성에 기여하지만 여성에게 아니무스의 인식은 여성이 부성상에서 분리하면서 시작된다. 아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원형에 동일시할수록 그러한 아버지의 딸은 부성 원형의 지배에 놓일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며, 딸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더욱더 운명적으로 얽히고 사로잡히는 부성콤플렉스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부성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여성은 페르조나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그것이 정도를 지나치면 오히려 그녀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소외시켜 온 그녀 내면의 ‘그림자’와 ‘아니무스’에 사로잡히고 그것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부성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여성이 사랑에 빠졌을 경우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한편 사랑의 체험과 고통을 통해 여성은 자신 안의 남성 즉 아니무스를 대면하고 자신 안의 그림자가 된 여성을 의식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기도 한다(본문, pp77-98). 즉 여성 내면의 영혼을 인식하고 만나 하나 되는 영원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며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무의식과 만나 의식과 무의식이 합성되어 여성 자신의 전체가 되는 자기실현 과정을 지향한다. 여성의 부정 콤플렉스의 목적 의미 또한 여성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고 동시에 자신의 전체가 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인 부정상과 그로 인한 여성의 부정적 아니무스의 사로잡힘 현상으로 자신과 관련된 주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파괴적인 여성들의 상처를 분석가로서 만나곤 한다. 이 책에서 특히 저자 김계희는 부정콤플렉스의 문제에 의하여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고통 받고 있던 두 명의 여성 O와 N의 사례를 분석하여, 증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근원적 변환을 이끌 수 있었던 분석 과정의 내용을 진솔하게 실었다. 나는 두 여성의 사례를 가슴으로 읽어 내려갔다. 조용한 공명을 들었다. 섬세한 치유와 성장 과정이 담겨있는 소중한 기록을 남겨준 저자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녹록하지 않은 분석 과정을 견디고 이겨낸 내담자 O와 N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며 고뇌하는 많은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들의 영혼에 헌신하리라.

참고문헌

김계희, 박 신(2001): 《부성콤플렉스-분석심리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2015.